

종합·해설

■ 재보선 한달 앞으로... 여야 추석 민심잡기 총력전

터미널서... 재래시장서... “서민 마음 얻어라”

與, 서울역서 귀성 인사·바닥 민심 살피기

野, 용산참사 유가족 위로·상인 고충 체험

여야가 추석을 앞두고 민심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추석 민심이 10월 재선거의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이병 정국회를 ‘서민 국회’로 규정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중도실용 행보를 강력 뒷받침하기로 하고 추석 연휴에도 서민 정책 행보를 계속한다.

그동안 잇따라 재래시장을 방문하며 민심을 살피는 정몽준 대표는 30일 ‘밥퍼’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추석 연휴를 앞둔 내달 1일에는 서울역에서 귀성 인사를 한다.

당 서민행복추진본부는 이번 주 내내 시·도별, 당협별로 지역 재래시장을 찾는다. 이 자리에서 시장 상인과 간담회를 갖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보금자리 주택,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등 서민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도 할 계획이다.

당 ‘빈곤없는 나라 만드는 특별위원회’도 다음달 1일 마이크로 크레디트(무담보 소액대출)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과 간담회를 갖고 빈곤 문제 등을 논의한다.

강명승 위원장은 “조만간 알코올 중독자들을 만나 함께 고구마를 수확

하며 간담회를 갖는 등 추석을 앞두고 단순한 이벤트성 소보다는 정책 부분을 감안한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추석을 맞아 내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유치, 쌀값 안정대책, 이동통신 요금 인하 등 역점 추진 정책을 담은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정책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G20 정상회의 유치로 국운이 상승하는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며 “추석 연휴 때 G20의 의미, 중요성 등을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이병 추석 기간 민생현장으로 파고들어 ‘서민·중산층 정당’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동시에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정부 여당의 ‘까짜 서민정책’을 부각시켜 민심을 민주당으로 돌리고 10월 재보선에 앞서 ‘정권 심판론’을 확산시키겠다는 것.

이를 위해 정세균 대표 등 당 지도부는 29일 용산참사 현장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인사를 통해 “추석 전에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희도 마찬가지다. 정운찬 총리가 잘 정리해보겠다는 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G20 정상회의 유치 등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29일 오후 용산참사 유가족 숙소를 방문해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언을 했다. 저희가 잘 챙겨보겠다. 잘 버티고 힘내자”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정 대표는 이어 내달 1일에는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2일에는 어린이 보호시설을 방문, 아이들과 함께 송편을 빚을 계획이다.

개별 의원들은 각 지역에서 주요

역사나 터미널에서 귀향 인사를 하는 한편 재래시장에서 ‘차레음식 장보기’ 등의 행사를 통해 경기불황에 따른 시장상인과 서민들의 고충을 체험하며 바닥 민심을 살핀다.

민주당은 또 6세 이하 무료 교육, 고속도로 정제시 통행료 감면, ‘나홀로 명절 보장법’ 등 당의 ‘10대 민생정책’을 정리한 추석맞이 특별당보 12만부

를 제작, 귀경객들에게 배포하며 홍보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번 당보는 특히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입되는 22조원의 예산을 서민예산으로 전환할 경우 노인 돌봄 지원, 초·중·고교 무료 급식, 장애인 복지 연금 지급 등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유랑 마친 이재오 ‘제3의 역할’로 복귀

국민권익위원장 내정

여권 역학 구도 정립

여권내 실세인 한나라당 이재오 전 최고위원이 오랜 유랑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제 자리를 잡았다. 29일 이재오 전 최고위원이 국민권익위원장에 내정됨에 따라 빠른 속도로 여권내 역학 구도도 틀이 잡힐 전망이다.

이 전 최고위원의 여의도 복귀론 및 당 복귀론은 서울 은평동이 10월 재선거 대상에서 제외되고, 9월 조기 전당대회 개최론이 힘을 잃음에 따라 사실상 무산됐지만 국민권익위원장이란 ‘제3의 역할’로 거취가 결정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 전 최고위원을 국민권익위원장으로의 발탁한 것은 다중포석에 깔려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우선 국민권익위원장에 이 전 최고위원이 적임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최고

위원이 ‘당내 개혁파’로 불릴 정도로 엄격한 도덕성과 국민 권익 문제에 천착하고 있음을 고려했다는 것.

이명박 정부 들어 ‘법질서 확립’이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국민 권익 외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 이 전 최고위원에게 국민권익위원회를 맡김으로써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

정권 창출의 1등 공신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미국 유배 생활’을 해온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배려로도 읽힌다.

이같이 이 전 최고위원이 국민 권익위에 등지를 틀게 됨에 따라 여권질서는 정몽준 대표-정운찬 총리(정부)-정정길 대통령실장(청와대) 등의 라인업과 함께 한층 공고해질 전망이다.

한편 이 전 최고위원은 내정 소식이 알려진 뒤 축하 난 및 화환이 속속 도착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중히 사절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

“호남서도 한나라 의원 나올 수 있어야”

MB 선거구 개편 거둬 역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나라당 최고위원 및 중진의원들과 가진 청와대 조찬회동에서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 “특정 선거구제를 지칭해 좋다는 것은 아니다”며 “호남에서 한나라당의원이 나오고 영남에서 상대 당의원이 나오는 지역통합을 이룰 수 있는 보완방안이 나오길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방미 결과를 설명하면서 “여야 대표를 모두 만나 초당적으로 외교 성과를 설명하고 논의 했으면 했는데, 여의치 않아 무척 아쉽다”며 “앞으로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가 갖는 의미와 성과, 이번 G20 정상회의를 통해 확인한 한국의 위상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했으며, 남북문제와 관련한 ‘그랜드 바겐’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설명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조경태 “현금서비스 수수료 내려야”

국내 카드사들이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현금서비스를 통해 여전히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부위 소속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2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로 약 1조2천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수익은 2007년 2조4천541억원, 2008년 2조4

천886억원이었다.

조 의원은 “현금서비스 이자율은 한국이 최고 31%로 18%인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한 뒤 “경제위기 속에서 카드사들의 높은 이자 때문에 서민들은 사금융을 찾아 피해를 보고 양극화가 심화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수수료율 인하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추석 연휴엔 MB 심판론 이슈화”

민주 ‘추석전 재보선 공천’ 급물살... 금명간 전지역 완료

손학규 전 대표의 수원 장안 불출마 등으로 진통을 겪던 민주당의 10월 재보선 공천 작업이 급류를 타고 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에 10월 재보선 지역 5곳의 공천을 매듭짓고 추석 민심에 민주당 바람을 불려일으킨다는 전략이다.

29일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재선거 지역인 경남 양산에 친노 386인 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을, 강릉에 홍준일 지역위원장을 공천키로 결정했다.

안산 상록 읍은 이날 김영환 전 의원, 김재복 지역위원장, 윤석규 전 청와대 시민사회국장 등을 후보로 여론

조사에 의한 경선에 들어갔다.

또한, 수원 장안과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공천도 금명간 후보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수원 장안의 경우, 구 민주계인 장상 최고위원과 손학규 전 대표 측의 이찬열 지역위원장이 막판 경합 중이어서 공천 결과가 주목된다.

그동안 상황을 관망해온 장 최고위원이 “당을 위해 희생할 의사가 있다”며 출마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이 위원장의 공천 흐름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특히, 손 전 대표가 이 위원장에 대해 사실상 지지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장 최고위원이 공천이 된다면 당내에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실제로 장 최고위원의 공천이 현실화된다면 손 전 대표의 집거가 더욱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충북의 경우 뒤늦게 재보선 지역에 포함되면서 당초 추석 연휴 이후 후보자가 결정될 예정이었으나 추석 민심 공략 차원에서 시기가 앞

당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에선 정범구 전 의원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으로 전략공천 대상이 압축됐는데 정 전 의원은 현 지역구인 서울 중구를 떠나야 하는 문제가, 이 전 장관은 당적이 없어 재입당해야 하는 문제가 공천의 막판 변수가 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석 연휴에 재선거 후보들을 전면에 내세워 이명박 정부 심판론의 이슈화에 나설 것”이라며 “그러나 수원 장안 등의 공천 후 유증도 만만치 않을 예정이어서 걱정이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합격하고 싶다면 한빛고시학원을 통하라!! — www.hanbitgosi.co.kr

2010년 신바람 나는 공무원 합격준비는 지금부터 한빛에서

소방직 전문학원

소방직 특강기 무료체험

한빛소방직전문학원

7·9 공무원 합격의 힘!

7·9 종합반 하루9시간 강의

기능직특채 찍어주기 "하루특강"

한빛고시학원

올야간반

첫개강 10월 5일

강의시간 19:00 ~ 22:00

기초부터 심화이론 체계적인 학습단계 합격 논스톱강좌

한빛고시학원

한빛고시학원

강주

한빛고시학원

강주 북구행일

234-9234

한빛고시학원

강주